

지역 소식통

고창군-한국여행업협회  
국내의 관광객 유치 협약

고창군이 22일 오전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고창군 관광 활성화 공동마케팅 협력 및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

고창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창군수를 비롯한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장유재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창군과 한국여행업협회는 앞으로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 고창 관광상품 개발·운영·판매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한다. 또 신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을 약속했다. 고창군은 한국여행업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여행업계와 교류 증진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지속가능 세계100대 관광지로 선정된 운곡 탐사르습지를 비롯한 선운산, 고창읍성, 학원관광농장 등에 남녀노소 테마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해수욕장 인명  
구조요원 교육생 모집

부안군은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협력하여 2022년 개장할 관내 5개소(격포 변산, 모항, 고사포, 위도)해수욕장의 안전관리와 신속한 구조활동을 담당할 인명구조요원 교육생을 모집·양성한다.

이번에 모집할 인원은 총 20명으로 부안군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 중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8일부터 5월 2일까지이며, 신청 및 접수방법은 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일정은 5~6월중 주1회 실시하며 (기간중 5일간)부안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과 인명구조법 등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최종평가를 통하여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 고구마 세계 최고 꿈꾼다'

## 고창일반산단에 고구마 가공공장 준공

'국내 최고 식품전문 산단'을 목표로 한 고창일반산단에 최신텔 비의 고창 황토고구마 가공시설이 들어섰다.

22일 오후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 영농조합법인(대표 서재필)이 고창일반산단단지 현장에서 '고창 고구마 가공공장 준공식'을 성황리에 열었다.

행사에는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이문구 농협중앙회 고창군 지부장 및 농협장 류정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고구마 재배농가와 농업인 등이 참석했다.

고구마 가공공장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작물공동(블랙)경영체 육성사업(사업다각화) 공모에 선정되어 3년(2020~2022년)에 걸쳐 고구마 가공공장(건축면적 2515㎡, 연면적 3324㎡)을 신축했다.

사업비는 당초 67억원에서 가공공장

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보전을 위해 오페수 처리시설 증축 및 기계 설비 고급화로 지부당 15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총 82억원이 투입됐다.

이날 준공된 고구마 가공공장에선 지역에서 재배되는 고구마 중 유통이 되지 않거나 비선호과로 분류된 소규모 재배농가의 고구마를 전량 수매해 고구마 고로케, 고구마파제, 스틱, 큐브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판매할 예정이다.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 서재필 대표는 "생산 및 유통방식 개선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OEM방식을 탈피해 자체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다"며 "특히 해외시장을 개척해 고창고구마를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최고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제2선거구 김대중, 영영선, 이현호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오전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제2선거구 도의원 경선 원팀 구성을 선언하고 조상중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 당의 승리 위해 원팀 제안

### 민주당 정읍시 도의원 경선 원팀 선언 · 조상중 예비후보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제2선거구 김대중, 영영선, 이현호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오전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제2선거구 도의원 경선 원팀 구성을 선언하고 조상중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세 예비후보는 '원팀 구성 선언문'을 통해 "이번 6.1 지방선거는 대선 패배 이후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탈환을 위한 첫 단추로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낡은 구시대적 정치 형태를 청산하고 새로운 변화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내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에 우리 후보자 3인은 인식을 같이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원팀'을 선언한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세 예비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4년 · 총선에서도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민주당이 승리하고 더

나아가 성숙한 정치문화 풍토를 조성해 ·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라며 "결국 개인의 승리가 아닌, 시민 모두의 승리로 돌려 사회통합을 끌어내야 위기의 정읍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한 "전라북도 감사에서 조상중 예비후보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업체와 물품구매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조사한 결과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읍시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정읍시에 통보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조상중 예비후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을 넘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하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역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 선정

### 정읍시, 국비 47억5000만원 확보...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 개발 나서

정읍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99억원 규모의(국비 47.5억, 도비 23.75억, 시비 23.75억) 리빙랩 활용 경제동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산성 개선 및 탄소 저감용 기능성 복합제제 사업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안에 사는 미생물(micro)과 생태계(bio)를 총칭하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 소와 돼지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특히 정읍지역 축산농가에 현장 실



정읍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증을 통한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구자와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리빙랩 기반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읍시와 전라북도가 총괄 주관하며, 전북테크노파크가 연구 주관기관으로 함께 참여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 지방선거 정읍 복지 정책 제안 나서

지난 22일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운용)와 정읍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최갑동)는 0월1일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모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과 시민사회에 "사회복지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운용 회장을 비롯한 '6.1 지방선거 사회복지정책 제안 TF'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분야 8가지 정책 의제가 발표되었다.

이들 단체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정읍지역 사회복지 회원시설은 물론 각 분야별 시설 기관들로부터 정책제안을 수렴하였고, 정책제안 TF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최종적으로 3개 분야 8가지의 정책 제안을 확정 하였다.

이후 지난 4월15일부터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전달했고, 후보자들은 제안된 정책의제에 대한 이행의사를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에 보내왔다고 전했다.

제안된 정책의제는 총3개 분야 8가지이며 사회복지직무서 강화3건, 사회복지시스템강화 및 인프라 확충4건, 사회복지증가사자 권리보장확대 1건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남부안 소생활권 활성화 주민기획단 참여자 모집

남부안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 사무국에서는 남부안생활권(보안면, 출포면)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기획단 참여희망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부안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주민기획단은 보안면, 출포면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불분·교육·청년 등 다양한 주제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협력사업을 함께 기획해나가는 주민 참여 단체로 보안면, 출포면 지역 발

전에 관심 있는 부안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된 주민기획단은 5월 중 예정된 오픈포럼 등에 참여해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남부안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주민기획단에 참여해 희망하는 주민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